

不安의 哲學者 『하이데겔』(8)

-그 現代的 意義와 限界-

朴致祐

이러한 態도의 可能 不可能의 1 問題는 여기서는 二次的 問題다. 이러한 態度가 可能하나 不可能하나 하는 問題를 못기 前에 爲先 우리는 그들이 自身の 危機를 打開하기 爲하여 얼마나 허둥지둥 거리고 잇는가 하는 그 點만은 □直히 承認 할만한 □□은 잇서야 한다.

다음 그러면 그의 哲學이 가지는 바 必然的인 限界는 어느 곳에 잇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그의 人間觀이 結局은 『諦觀的』이며 『絶望的』인 人間觀에 지나지 못한다는 그 點에 두고 십다. 나는 왜 이러케 말하는 것일까?

그의 人間觀은 『諦觀的 絶望的』이라고는 하나 그러타고 이것을 대번에 自□自的인 『데카단스』와 同一視하여서는 안될 것은 勿論이다. 單純한 自□自□와는 混同 못할 積極的인 『무엇』이 잇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엇』은 또한 『데카단스』와 『레리기온』을 區別짓는 가장 重要한 契機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點을 설사 承認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가튼 事實만은 確實 할 것이다. 即-거기서 차저질 참된 自覺이란 純粹自我性의 覺得 即 『純粹自覺』은 될 수 잇서도 아직 『歷史的 社會的』인 自覺은 못된다는 것 따라서 거기서 차저질 自己的인 自我란 結局은 (우리들의 述語로 부르면)時空을 떠난 『純粹人間』박게는 못되리라는 것 이것만은 確實 할 것이다. 왜 인가하면 될 수 잇는 대로 世上을 떠나야만 世事에 沒頭된 狀態로부터 떠나야만 다시 말하면 現實的인 世界를 떠나야만 어들 수 잇다는 그의 所□참된 自覺이란 結局은 『現實』을 떠나기 爲하여서만 잇을 수 잇는 自覺 박게는 못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純粹한 自我性에 汲피汲피 沈潘하여 世上을 向하여 分數되 었든 『關心』을 內向식혀라 하는 그의 이 一見 汲흔듯한 敎說은 實相은 다음과 가튼 至極히 簡單한 한 개의 命題로 박굴 수 잇는 것이다. 即 『동무여! 現實을 하로 밥비 떠날지어다!』

그러나 一步를 課하여 그의 以上の 諸主張을 條件 업시 承認한다 하더라도 亦是 다음과 가튼 事實만은 確實 할 것이다. 卽 만일 現實만 떠나면 대변에 純粹한 自我性을 發見 할 수 있다 하더라도-(事實은 잇슬 수 업다. 如何한 □類의 純粹自覺도 名稱만이 純粹인 것이지 文字대로 『純粹』한 自覺은 잇슬 수 업다. 왜 인가하면 그들로 하여곰 이러한 空虛한 純粹自覺만을 찾시 안코는 견딜 수 업게 구는 □然한 『現實』의 背景이 부터 다니는 것이니까-)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新興 意識에 불타든 사람들은 이러한 空虛한 自我性의 發見과는 가장 먼 距離에 선다는 그것만은 確實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如何히 積極的이든 如何히 深遠하든 간에 적어도 『諦觀的 絶望的』이라는 冠詞가 붙는 人間觀인 以上 그것은 敗北性과는 關係잇슬 망정 新興性과는 無關이라는 말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가튼 斷定을 내린다. 卽 하이텍겔哲學의 現代的 意義가 그가 諦觀的 絶望的인 人間觀인 그 點에 잇섯다면 이와 同一한 □利로서 그의 『限界』도 또한 이 點에 달린 것이라-고 하이텍겔哲學의 意義性은 그의 限界性이다. 그의 哲學은 한 개의 그러나 아름다운 한 개의 『敗北의 哲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敗北』은 그러나 『야스펠스』에 이르면 더한 層切迫된 表現의 形態를 가초게 된다.

(以上)